
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
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,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		
책 임 자	탁윤성 과 장(2156-9780)	담 당 자	윤영주 사무관(2156-9786)
	김성범 국 장(3145-7890)		김금태 팀 장(3145-7903)
배 포 일	2015. 11.23.(월) 19:00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공보실(3145-5786~92) 총 2매

제 목 : 금융위·금감원, 한·일 금융감독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금융청과 제5차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'15.11.23(월)~24(화) 양일간 한국에서 제5차 한·일 금융감독 정례회의(Shuttle Meeting) 개최
 - 韓·日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 간 교류·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정책·감독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정기적 협의채널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'15년 7월 새로 취임한 모리 노부치카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면담 및 환영만찬(11.23)에서,
 -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관련 공동 대응방안, 양국의 최근 금융정책·금융감독 방향*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,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강화**하기로 합의하였음

* (한국) 금융회사 보신주의 관행 개선 및 벤처·창업기회 확대,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 자율책임문화 확산,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

(일본) 금융청의 '15년 금융행정방침, 규제개혁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재고 등

** 게임온 주식 불공정거래사건 관련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日 SESC와 협력조사 中

-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1.24(화) 금감원에서 개최되는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 및 오찬에서,
 -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세부협력방안과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양국의 경험 공유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,
 -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정보교환 등 韓·日 감독당국간 공조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
- 韓·日 양국 금융당국은 '12.11월 최초로 韓·日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,
 - 양국 금융당국 수장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구축된 상호신뢰·협력 관계를 토대로 감독정보 공유 및 검사·감독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('14.11월)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